朝鮮日報 朝刊 本紙夕刊十面

社說 東阿의風雲急迫 國際正義安在乎

一

國際聯盟의體面을保持하기爲하야맨드는 伊에紛爭和協委員會는 九日會合으로서 無期延期되여 同委員會는 事實上決裂되엿다는今日外電과同時에 國際聯盟事務局에서는 이和協委員會의失敗로 伊에間의戰爭은 必至의것이라고 公然히言明하게되엿다는報道는 東阿의風雲이 切迫하엿다는印象을 또다시 새롭게하는바가잇다。一方에二十餘萬의 大兵과莫大한軍器其他材料를 伊領쏘마리렌드로輸送하면서 一方에聯盟의斡旋으로 和協委員會案을 受諾하엿든過去의 伊國의態度란 端的으로表現하면 戰爭하지안코도 伊太利가 必要한것을 에디오피아로부터取할수가잇스면 和協的方法을 擇할것이나、結局이러케맨드는데는 에디오피아는 實力으로써 到底히伊國을 對抗할수업다는것을 알엇만큼 威力을 보일必要가잇다는、傍若無人의 態度엿다。伊國이聯盟의 和協委員會案을受諾한것은 오로지聯盟國으로서의 一時的體面을 직히는데 不過하엿든것과 한가지로 英佛諸國이 에디오피아의 提訴에依하야 和協委員會를 斡旋한것도 伊에紛爭을聯盟의性質上 그대로 默殺할수업는펄렘마에빠저서 紛爭의 惡化를조곰식 延長식히면서、어더케巧妙히 伊國이에國으로터 顧하는條件에制限을加하야 에國을說伏하려는데 잇섯든것이다。

二

그러나 그동안以上의 伊國과聯盟의所望은 그어느것이나、無에서無를實現하는데 不過하엿다。첫재 伊國의好戰的인 恐喝政策에不拘하고 에디오피아國이 着着防備工作을 倂行하야 一戰을不辭한것과 둘째는 主要聯盟國의步調가 完全히背離되엿까닭이다。今年一月七日 歐洲外交協定의成立을끄는 佛伊協定에잇서 伊國이佛國의 對獨政策을 支持하는代價로 佛國이東阿에서 行하는伊國의政策을 默認한다는 密約이잇섯다는것은 公然한事實이엿스나 佛國은聯盟의 支柱로서聯盟의 一般的機能을 스스로無視할수업는關係上 英國으로더부러실으면서도 過去聯盟理事會에잇서 伊에紛爭에對한 問題를 審議치아니치못하는 펄렘마에빠젓든것이다。그러나英獨海軍協定의 成立은 結局佛國으로하여곰 英國과이 問題에對한 形式上協作까지를拒否케맨들고 伊國으로하여곰 그取하고십흔手段을 스스로取할수잇도록 하게맨들고 마럿다。이러하야 伊太利는 이러한에디오피아問題를 에둘은 英佛不合作의찬스를타서 더욱더욱大兵을그國境에 集中케되엿다。

三

伊太利의 에디오피아에對한野望은 그人口問題의 解決에잇다함으로 못솔리니首相의 파시즘의指導精神인『戰爭은人類를進步케한다』는 好戰的國民指導精神과아울러、에國을保護國과한種程度로맨들든지、어더튼 그勢力圈內로맨들고말決意는 理論과國際公德을떠난것인모양이다『勝利하는것이正義라』는 파시스트的正義가 國家的强者와 弱者의調和 잇는國家間의 善隣關係를 蹂躪하야 戰爭에 訴치 안토록

를하는것을 目標로하는 國際聯盟의 正義와는 에디오피아問題에잇서 完全히 對立되엿다. 에디오피아問題解決에 잇서 現在가장努力하고잇는 英國의態度도 侵略者를保護한다는것보담도 自國의 利益侵害를 防止하려는것이 主眼으로 結局强國으로서의自家擁護가第一義的이오 聯盟機構의運用은 第二義的이라는것은、그 伊에紛爭解決策이 統一되고 國際正義는 現狀維持의保障이 된다는것이 現下國際關係의實相이라할것이다

積極的으로邁進
에디오피아問題에對한 伊國政府態度表明

和協決裂報道로

【電通로마九日發】 스케베니겐에잇서 和協委員會가 無期休會되여 一切을 聯盟에 報告하고새로운指示를 기다리기로 되엿슴으로 伊太利政府當局은 和協委員會의存續은 當分認定하나 右委員會에依한 協定手續의 進行에는 斷乎反對하고 積極的態度로直進하기爲하야 九日夜左와如한態度를表明하엿다

一、에디오피아 側에서는 에디오피아側의 敗訴를 確定케할重大한 文書가 伊太利側으로부터 委員會에 持出될것을알고 故意로 議事妨害를圖하야 委員會의 權限以外에 國境確定을協議하려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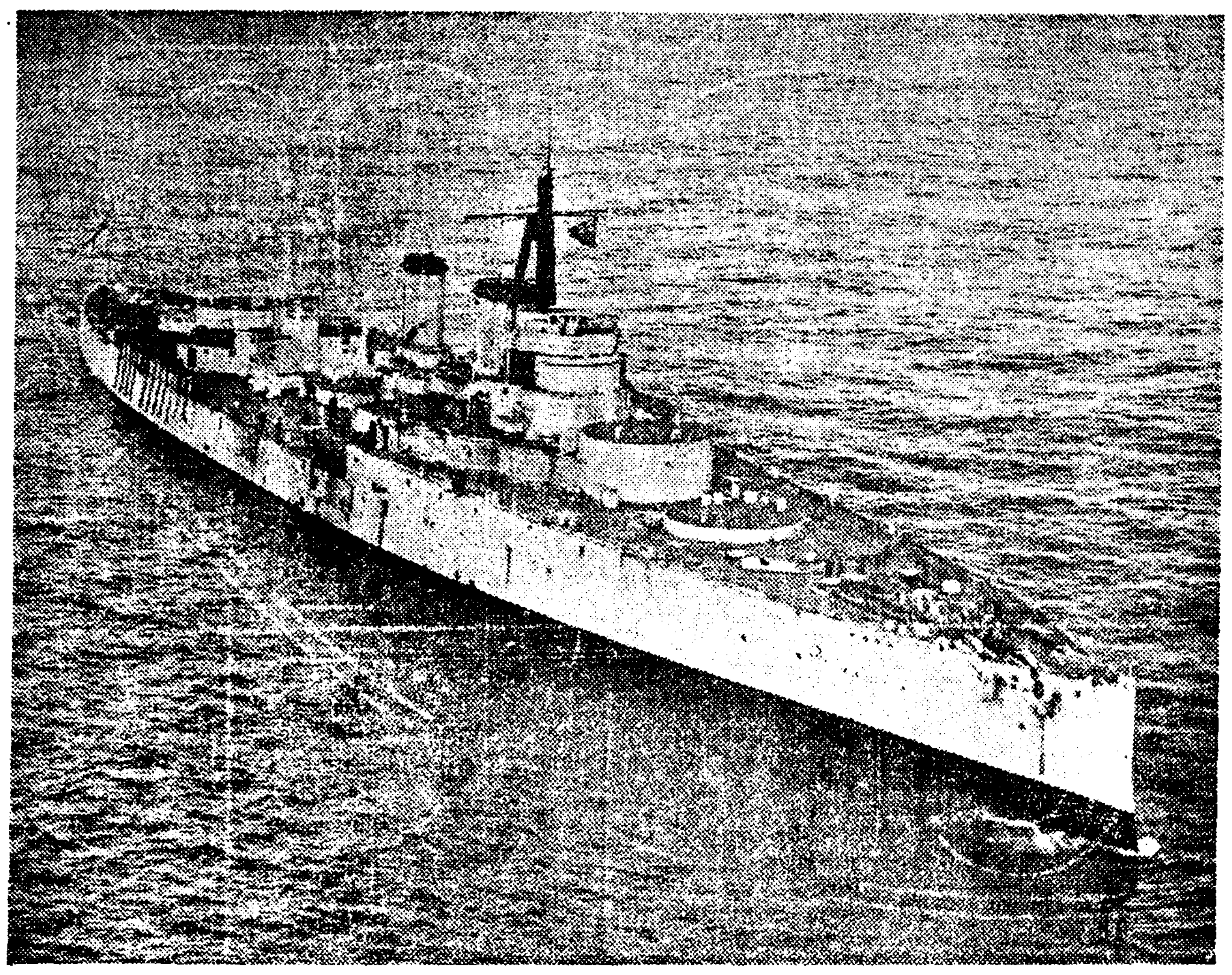
一、大戰爭을地方이 伊에어나一國에關하는지는 委員會의使命으로보면 全然第二次的問題이다 그리고伊太利軍은 同地方에駐屯한지이미五、六年에 及하고 此에對하야 에디오피아兵이加한攻擊은 全然不當하다는것이判明되대잇슴에서라

一、伊太利는 國境問題協議를 如上의理由에依하야 拒絶하고또 和協委員會에對하여는 如上의事項을 基礎로 第三者인中立和協委員을 任命하려하는데도 反對한다 現在의 伊太利各二名의委員으로서 하드라도正當한議事는 繼續할수잇스며 故意의妨害에依하야 選任되는委員에 第五次의委員을 加하는것은 意味가되지안는것이다

一、바야흐로 委員會의 對處理는 全然 聯盟으로옴긴以外에 何等의 새로운協議를 讓來할것은안이다 그리고 伊太利政府는 此種委員會가 도리허事件解決을 妨害한事實을 忘却할수업고 自進하야眞正한 解決을促進할方途를 考慮할것이다

에國은戰時氣分
英米伊各國民撤歸開始

【電通아디스아베바九日發】和蘭會議의 報에 지금 伊에戰爭 在留의 英米伊各國民의 撤歸先 스케베닝겐의 伊에紛爭和協委員은 不可避라고 憂慮되어 當地 發隊는 九日午後 當地發列車로 國境方面에 避難을 開始하야 當地는 戰時氣分이 濃厚하게되엿다 에디오피아皇帝陛下 側近者



無電으로操縱하는標的船

英國海軍省에서 砲擊과空中爆擊練習에 實際標的으로 써使用하기爲하야製造한、標的船『센츄리온』號이나、이標的船에는勿論 船員은하나도업고、無電操縱에依하야 自由로 海上을 疾走하는 怪物이다

首相總督間에 統治問題懇談

【東京電話聯合】宇垣朝鮮總督은 十日午前八時二十五分 官邸로岡田首相을 訪問하고 上京人事를한後 朝鮮統治의 現況과 將來의 諸般에對하야 報告하엿는데 이에對하야 岡田首相은 朝鮮統治의 重大性에 鑑하야 그完璧을 期하여달라는旨를 要望한바잇섯다 同九時四十分會見을 終了하엿다

側에서는 陛下께서도 對伊戰爭을 覺悟하고잇다고 觀測하고 與論에 에디오피아國民의 敵愾를 强調하엿다 伊太利는 에리트리아、소마릴렌드의 國境에 飛行機를配置하고잇다는 情報에 接하고잇는데 에디오피아國民은 지금 언제든지 伊太利의 攻擊에 對하야 最後의 一人이되기까지 斷乎 應戰할 用意가 잇다 그리고 當地의 外國會社는 이미 現金取引以外는 一切 信用取引을 禁止하고 一般의商取引은 도 거의 停頓狀態가되엿다

張群氏對日策을 蔣介石氏도承認乎

【南京十日發聯合】中央政治會議終了後 有吉大使는 午後에 張群을訪問하야 張群氏 熊式輝氏 何應欽氏等과 會見하고 日中兩國提携의具體案에關하야 安協을 遂하고 다시黃紹雄氏를 訪問하고 成都에赴하야 蔣介石氏와 會見하기로되엿는데 蔣介石氏는 七月末南京에 歸還할豫定인데 歸京後에는 張群氏等의 政策을 全幅的으로 承認하리라고觀測되는바 日中兩國關係의徹底的調整은 蔣介石氏의 南京歸還을기다려 完成되리라고豫想된다

酒匂가즈롬스키 第三次會談

【東京電話聯合】十日 大田駐蘇大使로부터서의外務省着電에依하면 酒匂參事官은 七日 카즈롬스키를 訪問하고 日蘇漁業協定에對하야 第三次會見을遂하엿다 右會見에잇서서 酒匂參事官은 六月二十八日 蘇聯邦側에서 提出한 同答案에對하야 質問을 行하고 同漁區의 交涉을 進行하엿다 그結果 蘇聯邦側에서는 漁業條約의交涉을 完了한後 正式回答을 提出하겟다는旨를 通告하고 會見을 終了하엿다 그리고 日本政府로서는 六月二十八日 蘇聯邦回答에對하야 外務、農林의關係省에서 協議를 進行하야 成案을어더 提示하기로되엿다

漁區問題에對해 全面的으로反駁
蘇政府에質問書手交

【電通東京電話】十日太田駐蘇大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公電에依하면 酒匂參事官은 九日蘇聯外務人民委員會 極東部長 카즈롬스키氏를 訪問하고 漁業條約改訂에關한 第三次交涉을行하고 去六月二十八日 蘇聯側에서 提出한特別漁區의撤下、오페라시크漁區의取扱等에關한 蘇聯의主張을 理由不明瞭한것이 잇슴으로 數個條로된質問書를 手交하고 그回答을促하엿다 此에對하야 蘇聯側은 極東漁業과協議한後 何等의回答을 行하겟다고答하엿다 去六月二十八日 蘇聯側提案에 對하여는 目下 外務、農林兩省間에서 協議를進行하고잇는데 日本側의 前記質問書에對한回答到着을 기다려 近日中에 外務、農林兩當局의 聯合協議會를開催하고 對策을 協議한後 蘇聯側의主張을 全面的으로反駁할터이다

滿洲里會談又延期

【新京十日發聯合】滿洲里에잇서서 哈爾濱事件交涉은 外蒙側首席代表의 身病으로 十日에도延期하야 休會되엿다

國境委員會設置 蘇具體案提出
蘇對루마니아間條約을基準 日滿兩國意向과背馳

【電通東京電話】駐日蘇聯大使유레니에프氏는 滿蘇國境紛爭解決委員會設置問題에 關하야 이미二回에亘하야 廣田外相과協議를遂하엿는데 十日午後三時半外務省에 廣田外相을 訪問하고 右具體案에關하야 約一時間 重要協議를遂하고 同四時에 辭去하엿다 右會見에잇서서 먼저유레니에프大使로부터 蘇聯政府는 國境紛爭委員會의設置에는 滿蘇의實意를說하고 目下其具體策에對하야 接壤諸國과締結한 同種의條約을 前例로 研究를進行할것인데、蘇聯側으로서는 一九二三年루마니아國과의間에 締結한 條約의趣旨에則하야 委員會設置를行하자는希望이다라는旨의 具體案을 提出하엿는데 이에對하야 廣田外相은 蘇聯側이 提示한루마니아國의條約은 이미 失效된것이라고諒解하는바 事實如何한가 또同條約은 歐洲諸國과의間에締結된 極히事務的 條約으로 반드시 滿蘇國境의事態에 適合하는것이라고는 信하지안는다 따라 日本側으로도 滿洲國及滿海軍 其他關係當局과 協議를遂하야 適當한代案을提出할旨를答하고 會見을終了하엿다 그리고 蘇聯側으로서는『蘇聯은루마니아間의條約을 基礎로 交涉을進行하기바란다』고提案한것으로보드라도 明白한바와가티 國境委員會의 組織權限을 極히事務的또 小規模의것으로 政治的色彩의介入을 避하려하는 態度를表示하야 日滿의希望과는 全面的으로 背馳되여잇슴으로 具體案等에關한 日蘇間의 交涉에는 아즉相當한 迂餘曲折이豫想된다

駐中蘇大使에 重大訓令

【南京九日發聯合】駐中蘇聯大使보고모로프氏는 八日夜 十一時秘密히 南京發 北平에 向하엿다 莫斯科로부터 某種의 重大訓令에接하야 日本의 察哈爾進出狀況을 實地調查하기爲함이라고 傳聞된다

臺灣自治制問題 政府所信質問 十日樞府本會議

【東京電話聯合】十日樞府本會議는 御諮詢案三件을 原案대로可決하고 十一時에 散會하엿는데 同會議에잇서서 臺灣自治制에關하야 各顧問側으로부터 今回의臺灣自治制는 完全한것이아니다 政府의 方針은 如何한가『質問한바 이에對하야 兒玉拓相으로부터 政府로서는 漸進主義로 進行할으로 今回의 自治制는 完全하다고는생각지안호나 完全한 自治制를施行하려하고잇다고 述하엿다 그리고 樞密院에서는 來十七日午前十時부터 本會議를開하고 左의御諮詢案三件을上程하야 可決할터이다

一、朝鮮總督府官制中改正의件
一、外務省官制中改正의件(電信事務의 擴充에件하는 增員의件)
一、文官任用令中改正의件

朝鮮人移民計畫 宇垣總督折衝注目

明年度政策事業의 樹立을 裝飾하는 總督府의朝鮮人滿洲移民計畫은 過般今井田政務總監의渡滿으로 滿洲國政府와 現地機關과의 基礎交涉은 大體의解決點에 到達되엿슴으로 宇垣總督은 渡東에際하야 事業大綱案을携行하고 目下中央政府當局과 極力折衝中인데 外事課當局이 整理를急히하고잇는 實行案도大體完了되엿슴으로 田中外事課長은 十五日前後原案을 携行하고 渡東하야 東部、拓務、內務等의 關係省과 事務的折衝을開始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朝鮮人移民計畫의 實現은 目下東部와拓務省에서 事業計畫進行하고잇는 日本內地人移民計畫進行에 가장 敏感히作用되리라고 觀測되는바 現在日本內地人移民計畫 業이 滿洲에移住하고잇는 此際이와分離하야 朝鮮人移民을獨自의立場에서 實現케하기는困難的移民政策上困難點되여잇는바 宇垣總督의政治的折衝結果 如何는 자못注目되여잇다

首相會見코 總督談

【東京電話聯合】岡田首相과會見後 宇垣總督은 말하엿다 今日總理와 會見하엿는데 會談內容은主로 來年度豫算에關한것이다 豫算에對해서는 藏相과 會見하야 … 까지 滯在할터인데 … 朝鮮統治의 … 今年은十月 朝鮮總督府施政第二十五周年에 相當하므로 朝鮮統治上에 功勞가 잇던이들을 招待하려고도생각한다 特히 齋藤子爵과 山梨半造大將、水野鍊太郎氏、兒玉拓相等이다 政界의 動向은 中耳炎을 알핫기때문에 아모것도 못들엇다 朝鮮人의 滿洲移民等에對해서는 지금 考究中이다 압서 今井田政務總監이 滿洲에가서 … 朝鮮銀行紙幣의 再發行하는것에關해서는 아모 報告도 밧지아니하엿다

蘇聯、東方政策一轉
外蒙과新疆에注力!
滿洲里會議에서는外蒙委員을指導 日滿勢力外蒙波及阻止

【電通東京電話】蘇聯邦의東部經略의 進路로서는 從來滿洲、外蒙古、新疆省의三路가 잇섯는데 最近滿洲國의 發展으로 滿洲로부터서의 南下는困難하게되엿슴으로 蘇聯政府는一轉하야 主力을外蒙及新疆에 集注하고잇는結果 日本의 東亞政策과衝突을招來하게되엿슴으로 日本外務當局은 注意를拂하게되엿다 即滿洲國의發展으로 蘇聯의滿洲經略이不可能하다고보게되자 北鐵을讓渡하고 爲先全面的後退의 氣勢를보엿스나 最近哈爾哈廟事件、察哈爾事件의發生을보게되매 日滿勢力의外蒙進出을 極度로憂慮하고 局面을一轉하야 外蒙及其背後의新疆省方面에 主力을傾注하야 外蒙人의操縱에 當하고잇는模樣이다 哈爾哈事件의 善後處置에關하여는 目下滿洲里會議에서 滿蒙間에協議를 進捗하고잇는데 蘇聯側은 外蒙委員을 指導하야 任事에協議에 抵抗하야 日滿勢力이外蒙에 미치는것을阻止하려하고잇다 特히十日某所에 達한情報에依하면 新疆省의盛世才는 蘇聯의援助를바다 外蒙의 西部우리야스다이 地方에漸次勢力을빼치고잇스며 同地方에는國民政府의 威令이 미치지못하는것으로 約一個月前에 飛行機로서 同地方을 爆擊하야多數의死傷者를 내엿다 外蒙地方에잇서蘇聯의 動向을大注目하고잇다 한것이며 日本側에잇서도對外蒙工作으로는 領事館其他의外交機關을設置할 必要를 痛感하고잇다

察哈爾線을南下 東方政策을遂行?
駐中蘇大使北上使命

【東京電話聯合】보고모로프駐中蘇聯大使는 本國政府의訓令에依하야 八日急遽北平에 赴하엿는데 右北上使命은 日本의對察哈爾工作의檢討에잇다고 報道되야 日滿蘇中四國勢力의 交錯地인 察哈爾問題의推移는 俄然各方面의注目을끌게되엿다 그리고蘇聯邦의對亞細亞進出政策은 新疆地區、外蒙地區線、滿洲地區線의三線이 從來의 根本主張이엿섯는데 滿洲國의成立、北鐵의 讓渡로滿洲線은 드듸어 斷念을不得已하게되엇든데서 新疆線과 外蒙線에그勢力을 傾注하야 新疆에잇서는 新疆政府方面을公然히 援助하야 獨立政權을 樹立케하야 新疆의地盤을 利用하야 蒙古의西部烏里雅蘇臺에 獨立地帶를 建設하엿다 그리고 外蒙共和國은 이미事實上蘇聯邦勢力下의 獨立國으로 中國의關係를脫하야 哈爾哈事件交涉에 잇서서 蘇聯邦의强硬한後援을看破하고 任事에日滿側에 對抗的氣勢를表示한 事實이잇는데 蘇聯邦은 新疆線、外蒙線의强化를圖하야 滿洲線의喪失에代하야 察哈爾線을 一擧確保하야 이線으로서 對亞細亞政策의 新線으로決定하야 斷乎南下를決意한것이라고目한다 보고모로프大使의 北上은 哈爾哈交涉의經緯、察哈爾問題의 將來에關하야 重大關心을끄으는것이며 日本政府는 그推移에 注目을繼하고잇다

日本內地在米 第二次發表
六、〇二二、〇七六石

【東京電話聯合】農林省第二次發表 本年七月一日 現在北海道外十地方의 在米高는

內地米	五、九五二、八七五石
朝鮮米	四三、一六〇
臺灣米	二五、〇三九
外國米	二
計	六、〇二二、〇七六

그리고 前回에發表한 六地方과의合計는 九百八萬一千八十九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二百三十七萬六千三百二十五石의 減少이다

十日地方米穀現在高

【電通東京電話】農林省發表=七月一日現在米穀現在高北海道外十地方의 分은左와如하다(單位石、比較는奈良縣만增)

地方別	七月一日現在	比前年同期減
北海道	八〇三、三〇七	三三、〇八五
山形	九〇九、八〇三	一四一、七〇三
栃木	三九九、四七〇	二四、九九三
新潟	一、〇三三、二四七	五四〇、三三八
長野	三六六、三五五	三一〇、六〇三
靜岡	四四七、〇〇五	七七、二四一
三重	七二一、四八七	九四、〇三五
奈良	二三五、一二四	(增)五、六六七
岡山	五五七、九六九	九九、三五六
德島	一六九、三三六	四四、八二〇
愛媛	二六四、六二三	一〇四、五九三
前回六地方計	[illegible]	[illegible]
合計	九、〇八一、〇八九	(減)二、三七六、三二五

滿洲移民會社 設立案具體化

【電通新京十日發】滿洲移民會社設立에關하여는 日滿兩國政府、關東軍、滿鐵等에서協議中이든바 마침내具體化되여 近近그實現을보게되엿다 그리고 右案의內容은 左와如하다

一、資本金 一千五百萬圓(內現物出資三分之一、現金出資三分之二、拂込二百五十萬圓)
二、出資者 滿洲國政府、滿鐵、日本官民
三、移民地 佳木斯附近百萬町步의買收地域
四、本社 新京
五、移民戶數 政府의移民策에應하야決定
六、一戶當補助金 千五百圓內外

人事·集會

◆毛允淑氏(詩人)本社落成式禮賓 人事次來社
◆李應淑氏(文士)同上

夕刊後市況 十日

◆大阪 滿期 短期◆
大新 八四一〇(不變)
鐘新 二一四五〇(二〇低)
日產 六八三〇(二〇高)
東新 二三七二〇(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一、八〇〇 先限 五九五〇
◆三井 人絹 後引◆ 當限 五八七〇 先限 五九〇〇

新聞展覽記 (2)

朝鮮의새歷史지은 己未後新聞雜誌

아홉가지신문과구십여종잡지 世界思潮에反響된出版文化

어제는한말(韓末)을 전후해서속생하든초창기조선신문의상황을소개하거니와오늘은재이긔 즉긔미운동이래 금일까지십칠년동안에조선의퍼날리든이 얼마나발달됏스며 또는그에따라 몃종의신문과잡지가 발간되든가를소개하려한다。

……

긔미년당시만해도 조선의신문이라면조촌까라에매일신보를꼽앗고그다음으로는 다소민통적색채를띄웟다고표방하든 도촌샹저(島村猜猪)씨주간의 반도신문(半島新聞)이이섯스나 불과긔년에메간후선우일(鮮于日)씨가 당시총독부로부터 보조금을어더가지고봉천으로건너가서 경영하든만주일보(滿洲日報)가이섯스나전긔반도신문과가튼운명에빠저불과수년만에업서지고말엇다 그리고반도신문、만주일보와 전후해서고민원식(閔元植)씨가 창간한시사신보(時事新報)도 잇는듯업는듯그존재가 극히미약하다가영양부족한 갓난애모양으로단생이변만에 쓰러지고말엇다。

◇

그다음으로진정한민간신문으로는대정팔년재등전총독이부임한뒤로의민간삼신문이라고할수가잇스니그것이현재의본보、시대일보(그후이신문은『중외일보』로다시『중앙일보』로 제호를몃번이나밧곱질하다가현재는『조선중앙일보』로되엇것)및동아일보들이다

그밧게 김명식、유진희(金明植、俞鎭熙)씨등이 사회주의적색채를가지고 경영하든『타블로이드』형의 『신생활(新生活)』이며 최남선씨가주간하든 전긔 『신생활』과가튼것으로 시대일보전신의『동명(東明)』들이 주간으로발행됏스나 그것들역시 재정상곤조또는당국의 긔휘에 저촉되어폐간되고말엇다 이상이 조선문으로된『형의 신문지는 도합 아홉종으로 이번전람회에 이나마 유루업시 진렬해잇서긔미이후 우리의신문이 얼마만큼고난의 행정을 거럿는지 짐작하기에 넉넉케하고잇다

◇

다음으로는 잡지니 긔미년이후금일까지도합 아흔다섯가지가발간되엇중에 제일주요한것은『백조(白潮)』『서광(曙光)』『창조(創造)』『폐허(廢墟)』『폐허이후(廢墟以後)』『조선문단(朝鮮文壇)』등으로이것들이 한가지도 빠진업시다모하잇서 실로잡지전당(殿堂)의관을 이루고잇다

……

더구나 진귀하다고 할만한것은윤치호(尹致昊)씨가 조선문이나일본문간에 착간호로된잡지만일백팔십여종을 수십년간에걷모하두엇다가 연전(延專)도서관에극중한것이 전부 이번전람회에과 김상덕(金相德)씨가 다년수집한 소년、소녀잡지 창간호만으로도 스물두가지가 출품되엇스며 또방응모(方應謨)씨가순조선문잡지창간호만 범오십여가지를 출품한것들이잇다

신문전람회에서 전긔온갓재출판물을옥돌하야 당시의참과 고의문화의 발전을회고하야 스스로감격을 늣기게하는바만타。

(사진은 전람회장)

鍾路署私食집에서 腸窒扶斯患者또發生

雇傭人이發病、昨日順化院行 留置人今後가注目處

금년에들어서 의외에도 장질부사가 시내에창궐하고 미틀보이어 각방면으로 관게당국은 경게중 바로방역주간에들어 장질부사는 일층창궐의그세를놉히어 각경찰서와 부청에서는 백방으로방역에로력중 지난이일에는 돌연경찰서문턱이종로경찰서에 사식을차입하는 지정음식집 영업자인 부내 청진동(淸進洞)일백십칠번지 지야호혜(芝野好惠)가장질부사로순화원(順化院)에입원치료중이든바 십일오후에 또다시이집고용녀가장질부사로 진단을받고순화원에 입원하여 오십여명을수용하고잇는종로서에서는 크게랑패하야 곳전긔음식점에일정한 긔간동안사식차입을 중지시키고다른음식점에차입하도록 하엿다고한다 그동안 종로경찰서에서는 전긔 사식지정음식점에 대하여서 주의를 안햇슬리는업스나 류치인의음식을 마련대이는집에서 련거퍼 두명식이나 환자가발생되엿스되 바로전까지 사식을계속케하엿는데 요행류치인들중에서는 아직까지별고는업스나 압흐로혹 류치인중에서 어떠사고나생기지안흘는지 크게주목을 끌고잇다

私食집은옴겻소

鍾路署當局者談

이경찰서에 사식을 차입하는지정음식점영업자 지야호혜(芝野好惠)가 장질부사로 진단된후 곳그집을 대소독하고 사식차입을일정한긔간동안 중지시키고다른음식점에 차입하게 하엿습니다 십일오후 그집고용녀가또발명되야 순화원에 입원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장질부사라고 확실히 진단나지안헛습니다

申弼浩氏九大에서 醫博論文通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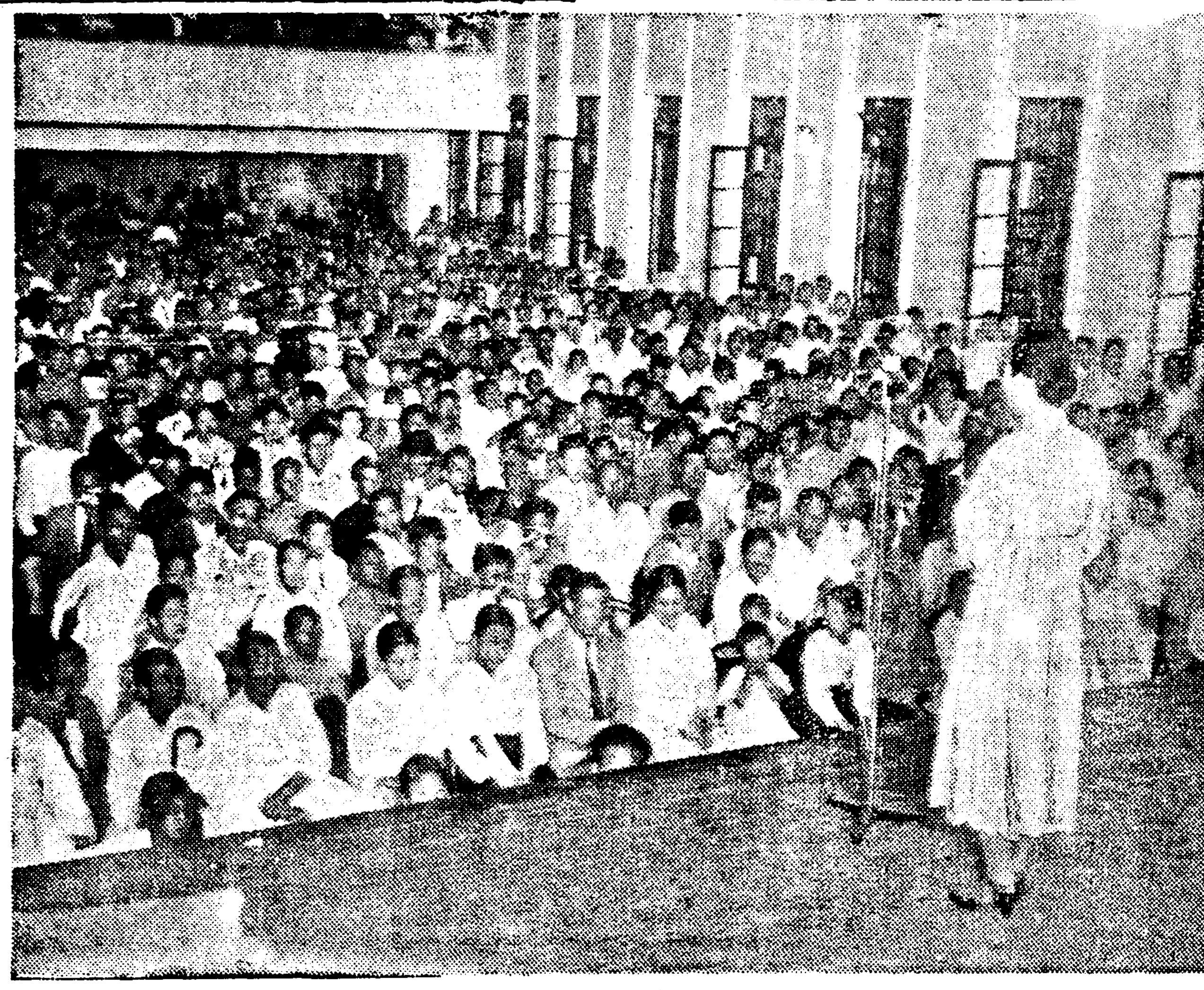
世醫專出身의學者

조선산부인과의 림상게대가 신필호(申弼浩)씨는『임신산욕열급유아각기의기초적연구』(妊娠、産褥熱及乳兒脚氣의基礎的研究)라는 주론문과 그밧게 여섯편의부론문을 구주제대의학부(九大醫學部)에 제출하엿든바 십일에동교수회에서 통과되어 명예로운 박사학위를 밧게되엿다。동씨는 당년사십이세로 대정십삼년에 세부란스 의학전문학교를졸업하고 대정칠년에 구주제대산부인과에서 연구를한후 시내인사동에서 개업을하는일방 소화오년에는 경성제대병리학교실에서 연구를차저 그온축으로전기론문을 쓰게된것이라한다

(사진은 신필호씨)

工費七十萬圓 京畿道廳新築

경기도에서는 요지음 차츰명년도 예산편성기에 드러서서각부에서 이로인하야 분주하고잇는데 매년숙제로만되여오든 청사신축을 명년도에는 실현할의향으로서 그예산으로 칠십만원을계상하기로 거지확정되엿다고한다 구청사는 벌서부터도 좁다고하야 특히내무부(內務部)의 학무(學務)토목(土木)문서(文書)의 세과와 경찰부의 보안형사과는 모다 협창을늣기고 잇서서 신축은 종종희망해나려오든차다 총공비칠십만원중 도의부담은 삼십만원가량이고 나머지 사십만원은 국고의보조를바드리라고한다



◇熱한愛讀者와舞臺우의女一歌手

十歲少女二名 疑問의失家

시내황금정(黃金町)사정목삼십번지 황응엽(黃應燁)의이녀 명갑(明甲)(ㄷ)과 그이웃집인 동이십사번지칠호 리정순(李貞順)(ㄱ)의두소녀는 십일오후한시경에 놀러나간다고나간채 동일밤이늣도록 도라오지아니하므로 량편집에서는 소관본정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두소녀는 나히열두살과 열살이나되더이라 길을일헛슬리는업고 혹시유인마에게 유인이되엇나하야 동서에서는시내각경찰에 수배하야 엄중수사중이다

外岔溝一帶 土兵出沒頻頻

【新義州】 평북초산대안 항인현호로두자(桓仁縣胡蘆頭子) 방면에 잡복중이든 수령중림(中林)점림(占林) 두파가 합류한토병 약배여명은 지난사일오전 다섯시경 동지를출발하야 중림(中林)이 인솔한토병 륙십여명은 집안현제삼구삼의전(第三區三義甸)방면으로가고 점님(占林)이 인솔한 약사십여명도 병은 동일오후한시 피조자(皮條溝子)지방에도착하야 일만군과 련락하는것으로 인정한 송오덕(宋五德)고명준(高明俊)두명의집에불을지르고 남하하야 세시경에 동구횡회(橫緡)방면에、이르러 중님과점님일파와 다시합대가되야 석천구(石淸區)방면에잠복중이다가 다시 ××제이중대 소대장박창철(朴昌鐵)이하 십이명과 합세되야 십대로 분하야가지고 이래는 외차구(外岔溝)부근 산상에잠복하야 포위대형식을취하고、의오일오전세시반 일대약삼십명중 십명이시내에침입하야 만두인왕덕선(王德選)외두명을 붓드러가든중 감시소원에게 발견되여 잡시교전하다가 산상에 잠복중이든다른두대와 합류되야 벽지로도망하엿다는데 이소식을들은 외차구(外岔溝)수비대에서는 즉시비상소집을행하야 토강대장(十岡隊長)이하삼십명은 이것을격멸식이고저 추격중이다가 도중에서약십여명의 토병과교전하야 소교(小橋)일등병은 중상을밧고토병을 격퇴한후 동일시경귀환하엿다

航空觀測所新設

조선의항공로의 중요를따라야총독부에서는 금년도에 공중의난관이라는 추풍령(秋風嶺)에관측소를설치하야 상층기상관측의완벽을 기하는동시에 기타의측후소의 충실에도착수한바잇섯는데명년도에는 계속하야 경원선삼방(京元線三防)과 북부선지방에 경의선의난관인 서흥(瑞興)에 각각측후소를설치하야공중교통의 사고방지에비하기로하엿다

瀆職巡査長 一年半役言渡

【海州】 전황해도경찰부순사부장 문태영(文台榮)(三七)의 독직사건(瀆職事件)은 지난구일오전십일시해주지방법원에서 상량(相良)검사립회하에 석천(石川)재판장으로부터 구형보다륙개월감하여일년륙개월징역과 벌금오십원의언도가잇섯다한다

廿萬圓에金鑛팔고 橫領罪로被訴

永興郡范浦鑛의韓基邦 咸興法院豫審廻附

【咸興】 영흥범포(范浦)금광을 이십만원으로 매각하고 일부부호가된한긔방(韓基邦)(五六)이수전부터 모사건피의로함흥법원검사국에서비밀히 취조를바더오다가 지난달이십일에 돌연동검사국에 구인되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드듸여지난오일에횡령죄(橫領罪)로 동법원예심에 회부되엿는데사건내용을탐문하건대 전긔 한긔방이는 약이십여년전부터 경성에잇는류모(劉某)라는사람과전긔 범포금광(范浦金鑛)을 공동출자하야 경영하여오든바 재작년동금광을 매각할때에 동업자인 전긔류모가모르게매각하여대금을 혼자가지엇슴으로류모로부터 고소를당하엿다고한다

滿浦線難工事 狗峴不遠征服

조선에서 철도건설사가운데최대난관이라고 일카를 만포선구현령(滿浦線狗峴嶺)의 수도개착공사는 지난팔월상순에 이미이십분수도의 개착이 완료되어게속하야 최후의난관인 구현령수도(延長二〇키로二九)가 남엇슬뿐인데 목하현재의 필사적노력으로 공사중이므로 그완료도불원간 보게되엇다

十七歲의處女가 身病悲觀自殺

갈로머리를찔러절명

십일오후시경 고양군룡강면동막하리(高陽郡龍江面東幕下里)이백사십오번지 정후섭(丁厚燮)의장녀인 정우난(丁于蘭)(一七)이라는소녀가 식도로 자긔머리를함부로찔러고 자살을도모하야 중상을입고 신음하고잇는것을 가족이발견하고 시내죽첨정 고려의원(高麗醫院)에 운반하야 응급치료를 바덧스나 동여서시반경에 드듸여 절명하엿다는데그처녀는 일즉이 신병이잇는것을비관하야오든중히스테리』성이만허 금번에도 면번인가 발작한일도 잇섯는데 이번에도 정신에다소이상이 생기엇든 모양이라한다

金組展覽會

금융조합련합회에서는 오는구월십팔일부터 이십일까지경성에서 열리는전조선금융조합리사협의회를 기회로이와시일을가치하야 금융조합시설전람회를개최하리라한다

今秋에開業할鐵道

假僻地로四個線開通

철도국에서는 금년에주력을하고방선에두고 착착공사를진행중인데 오는가을에는 일제히영업을개시하게될런지 지금까지의공사상황은 다음과갓다

一、혜산선(惠山線) 백암(白岩)역을긔점으로하는 『련루』부설공사는 이미동흥(東興)까지약이십키로가량이나 연장되야금년에개업하려는구역인 련하처 봉두(鳳頭)에입으는 이십구키로질분의삼분지이는 미완성된터이다

一、백무선(白茂線) 삼양대(三羊臺)역으로부터 서두수(西頭水)상연면(上延面)을거처 연암(延岩)까지가는 금년도개업예정선이십이키로』엽분의전구간은 이미련루를마치고방금보충공사를진행하는중이다

一、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 고성(高城)으로부터약육키로가량의선로연장을피하야 공사중의나리교와고성천교량(橋梁)약삼백이십메돌)의공사를진행하야 금년중에 고성으로부터 강정(江亭)저진(猪津)대거진(大巨津)을거처간성(杆城)에 일으는삼십삼키로구간은 금년개업구간으로하여

一、만포선(滿浦線)금년개업구간은 희천(熙川)으로부터 초상(草上)명문(明文)을 거처 개고(价古)에일으는 삽십일키로은 이미명문역을지나 희천으로부터 이십일『키로』지점에 일으러대체로 륙분가량완성되엿다

苦待는甘雨오긴하나 湖南엔浥塵의細雨

명일에도더올것갓지는안타고 穀倉地帶愁雲低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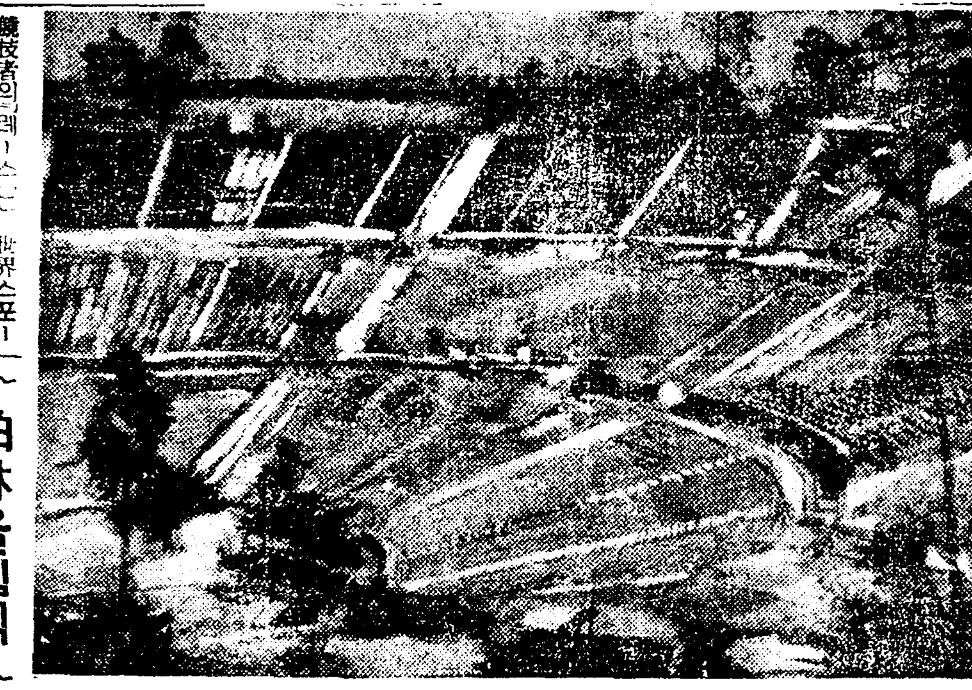
호남(湖南)지방전체와호서(湖西)지방일부와 령남(嶺南)지방일부의 한발은말할수업시 흑독한정도에 이르렀는데대망의비는갓슴건양으로흙생을 불어오고불어갈뿐이오한방울비도아니보내더니십일아츰부터는경성지방을위시하야중부이북에 비가오기 시작하얏는데이에대한 경성측후소 당국자의여그대한타진(打診)을구하면발해만(渤海灣)측황하류(黃河下流)에잇는 칠백오십이『미리』의저긔압(低氣壓)이 서서히동으로이동하기때문에 조선각지는흐리고비가오기시작하얏는데 그이동하는방향이 동북동(東北東)이기까닭에 경성이북에비가만이오고져작 비를기다리는 호남지방에는읍진(浥塵)에 불과한다고한다

그래서 십일오후다섯시까지에입전(入電)된 각지우량은 제일만흔곳이부산(釜山)의 십오『미리』이며 그다음은 인천(仁川)이륙『미리』이고 경성(京城)과대구(大邱)가오『미리』이며 전주(全州)는일목『미리』에 지나지못하는데십일밤까지도 흐린일긔와 간간히비가올더이니 호남지방의경들만큼 비가올것갓지안타하야지비를바라는곳은농작물에효과를어난구일로소서(小暑)를 보내고오는십사일로 초복(初伏)을 맛는지금에오히려 비다운비가오지아니함은 곡식의보고 호남지방으로하야금 길하지못한가을을 맛게함이라할수업다고한다

流浪의身勢버슨 新羅時代舍利塔

槐山서京城까지팔리워왓든것 保存令適用他殺搬出을嚴禁

신라(新羅)시대의 석탑이총독부의고적보존령의발동으로 겨우조선안에 머물러잇게되엇다 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에서고물상을하는 배성관(裵聖寬)은 지난달이십칠일경에 경긔도룡인(龍仁)군출생김성배(金聖培)의중개로 충북괴산군칠성면외사리(槐山郡七星面外沙里) 삼백사십구번지 김준형(金俊亨)으로부터 놉히가열두자(尺)나되는 웅대하고우아(優雅)한 신라시대의사리탑(舍利塔)한개를 삼백오십원으로사서 이것을수입전에 부내황금정(黃金町)이정목죽내(竹內)모에게 이천칠백원에전매하엿는데죽내는다시 이것을고가로일본내지나중국방면에팔려든것이다 그런데이것을탐지한총독부사회과에서는곳경긔도와충북량경찰부와 련락하야 이탑의정확한 원소재지와그소유권이며 또원소재지의유적상황과 반출경위등을 자세히조사하는중인바 일방칠월륙일 오전십시경에사회과원세명이 본정(本町)서보안게주임과 장시간협의한결과 경관과가티 전긔죽내의집에가서 이석탑을 검견(檢見)한결과조사할 필요가잇다하야 다른곳에 옴기지못하게 명령하는동시에 십일에는 사회과에서이탑을 보물로 지정을하고 곳속달편으로 본인에게 통달한결과해외로 나가지 못하게되엿다 그리하야 상품으로 이리저리매매되든 석탑은보물고적명승천연긔념물보존령에 의하야완전히보존하게 되엇다 이러한유적물은 보존상당한 연고잇는 보물로서 그 원소재지는 당여히 고적지대임이 틀님업슴으로 보존령의 위반이되는것은 물론조사의 결과에따라서는 이석탑을중심으로 여러가지부정 행위가발각될 것으로 어떠케 귀결을지을는지 주목되는데총독부에서는 금후이러한성질의사건에 대하야는 고적의보존상경찰과 협력하야 단연엄벌주의로나갈터이라한다



開城高靑主催 庭球大會盛況

高商軍이優勝

【開城】 개성고려청년회에서는지난칠일오전십시부터 부내송악구락부(松岳俱樂部)코ー트에서제이회전조선단체정구대회를 개최하얏다는데 전선각지로부터십여단체의참가로대성황을이루엇다는데 우승은경성고상팀이라한다

壯快한짜즈에 李孃의獨唱이人氣

雨天임에도不拘코大滿員이된 愛讀者慰安會第三夜

본보시내독자 위안회제삼일인십일은 아츰부터 비가오기시작하야 비록기다리든비이나 길이질고 공긔가음랭하야 외출하기밝은날에도 불편한바가잇스나열심한 애독자들은 뒤를이어모히기시작하야 역시 정각한시간전인일곱시부터 오는관중은정각이되기도전에 이미초만원의성황을이루엇섯다 정각이되야 예정한『프로』대로 연주가시작되매장내는 박수소리에무치고 넘처흐른박수성은 태평통큰거리를위압하야마지안헛는데 이날비는와도날이 비교적서늘하야 오히려구경하기는 조흔편이엇다 그러고순서중에 인긔를끄른것은 봉을치고나발을불고 깡깡이를 켜고춤을추는등 북적북적하는짜즈반드에 리란영(李蘭影)양의독창이단연인긔의 왕좌를점령하엿다

今夜招待區域

제사일인 십일일의 독자초대구역은 다음과갓다

需昌洞、唐珠洞、體府洞、內資洞、西大門町一丁目一部 光化門通、積善洞、樓上洞、樓下洞 孝子洞、淸雲洞、昌成洞、通洞 通義洞、玉仁洞、社稷洞、中學洞、壽松洞一部

運動競技

東西陸上對抗에 孫、柳兩君十三日發

來二十日과 二十一日의兩日間名古屋에서 開催되는東西對抗競技에出場할 朝鮮代表孫基禎(養正)柳長春(遞信)兩君은 十日에出發할豫定이든바 事情에依하야 十三日발車로出征할터이라한다

海州體育會에서 留學生野球招聘 十四日에두께임

【海州】 鄕土를來訪以來 四戰一勝二敗一無勝負의戰績을남긴 東京留學生野球團은 海州體育會의招聘을바더 來十四日午前九時에 體育會림과 同日午後四時부터는 全海州팀과對戰하기로되엿다

萬一千人의競走 스포츠史上初有事

지난六月十八日 蘇聯莫斯科의히보드롬·드래에서 開催된 斷郊競走(크로스·칸트리ー·레ー스)에는 男女學生、軍人、勞働者等各種職業의 스포ー츠맨 一萬一千人이 參加하야 너머도 人數가만허 各職業別로 二百人、三百人、또는五百人式 分隊하야 스타ー트하얏는데 一萬一千人이란 競技者의레ー스는 世界스포ー츠史上에 처음이라는 評判을밧고잇다

★今日의運動★

▲籠球＝文理科大學對延禧專門籠球戰은 午後五時三十分부터 明治町入口商銀코ー트에서 (雨天이면鐘路靑年會館에서)

伯林올림픽 大會競技場

明年八月로臨迫한 第十一回世界올림픽大會의競技場은 伯林郊外의『그르네왈드』의 三十五萬坪이나되는 廣大한地面에 各種競技場을建設中인데 陸上競技와蹴球를 兼用할大競技場은 六月初旬까지에는 完成과가튼狀態로工事가進捗되어잇다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고치는제일조혼약

(조선총독부출원허가제)

본사가 절대로 보증하는 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과대학병원
영미독불의과대학병원

에서최고최량약으로써 차약사용하며、또

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고、醫藥學界의 最高權威者十六名을 委員으로하야、愼重審議한後、그品位를定하야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그우에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봉함

이잇는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하야、何等의副作用이업도록 配劑한許可濟의公認治淋劑이다

따려서 그약효의 절대함은 다년 림상실험의실과 의학학계에서 절대적전치약으로 추장을밧게되엿스며 『이이상가는 약은업다』는고하는절대적신용을가지고 적제한것이다 그리고 약효에대하여서도 무효한때에는 돈을도로드릴것이니 별별치료를다하야 보아도효과가업는 환자는하루밧삐이약으로전치하십시오。

藥의有効無効는 小便을보면判定된다

림질사르는 려러가지로법에 미혹되야서는 안된다。제일 주의할것은오줌이다。보통우리가림질을앓어넷고면、소변을컵에다바더보혹、실낫가튼것이나 몬지가튼것이 떠다가려안젓다한다。즉 그것이 림사(淋糸)다。아무리 약을먹고 주사를할지라도、컵에오줌을바더보와、실낫가튼림사(淋糸)가꼬치어지지안코면효력업는것이다。그럼으로소변을 보와림사(淋糸)가 떠러진약을 먹지안으면 안된다。약이효력잇스면 림사(淋糸)도적어지고、통증도업서지며、고름도 잡히여전패의목적을달할수가잇다。

梅毒

本社創製의梅毒藥은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種과皇漢梅毒藥數種을主藥으로하야副作用이絶對업는出願許可濟公認驅梅劑로서

초기의감창、가래톳의치료는물론、제이기전신매독、잡복매독、유전매독、매독성르마지스등도 본제의내복으로、곳배독작용(排毒作用)을하며、매독으로 일어나는 불쾌증과 국부와전신증상이 점점히박하여저서치병의 목적을달할수잇다。무서운 매독을 자손에게 유전치안토록、하로라도빨리본사의구매제(驅梅劑)를복용하야고치시랍

림질 별제(탑입분)팔원 약득제(탑입분)사원

매독 별제(십첩입분)팔원 약득제(십첩입분)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二三六三番 振替京城二三一五七番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

책임제약임으로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습니다 좌의 有田도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京城 郵便本局前	有田도락구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龍山終点前	有田도락구
平壤本局前	有田도락구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仁川宮町二	有田도락구
大田榮町一	有田도락구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弓町	有田도락구
馬山京町三	有田도락구
麗水港	有田도락구
淸津本町	有田도락구
兼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碑石里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梅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三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安東縣四番三	有田도락구
奉天驛前	有田도락구
撫順東大條	有田도락구
開原新市街	有田도락구
四平街永盛路	有田도락구
新京東一條通	有田도락구
哈爾賓道外	有田도락구
大連越後町	有田도락구

滿鮮發賣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本社社屋落成과 各界人士의 祝辭

朝鮮의 表現機關 基礎가 더욱 鞏固

新義州 韓景職

朝鮮日報는 참으로 朝鮮의 日報입니다 朝鮮民衆의 마음속 깁히 맺힌 늣김, 命令, 希望, 切願―다시말하면 朝鮮의 魂의 表現、指導、激勵의 機關입니다 現實朝鮮에 잇서서 이러한 機關이 반다시 잇서야할 必要性은 두말할것도 업습니다。 한데 今番에 貴報의 社屋이 完成되여 基礎가 도한번 堅固하여짐에 際하여 祝賀를 禁할수 업나이다 兼하여 한가지 바라옵기는 朝鮮日報는 創立當初의 傳統과 精神을 따러 正確한 報導 特히 社會의 暗黑面과 光明面을 如實히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한숨과 눈물이 만흔 이 現實時代에서는 希望、激勵、忍耐와 努力의 精神을 鼓吹하여주실 木鐸이 되기를 바랍니다 簡單히 賀報

社屋落成에 伴해 一層興隆키를

淸津 張乃文

여긔에 貴報五千號를 마지하는 同時에 우리朝鮮一大의 자랑거리인 貴社社屋이 落成하게되엿에 新하야 貴社業務가 날로해로 興隆發展하고잇슴을 滿天下讀者諸位와 함께 慶賀함을 마지안습니다 의日益發展을 衷心으로 비옵니다

도라보건대 朝鮮日報가 創刊當來 만흔 星霜을 겪고 오늘에 이런 大業을 마지하게 되얏은 朝鮮日報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二千萬民衆의 둘도업는 機關이 되랴고 끈임업는 努力을 해온 까닭이라고 生覺합니다。

新聞의 使命은 社會의 耳目이 되여 正確한 事實을 迅速히 報道하야 與論을 中正公的으로 指導하야 갈것은 여긔에 말할필요가 업지만은 朝鮮日報가 이런 見地에서서 잘 그使命을 다해내려 함은 깁히 敬意를 表하야 마지안흠으로 몃마듸로 우리朝鮮의 公正한 指導者로서 朝鮮日報가 一層그使命에 邁進함과 아울러 社運이 날로날로 隆盛하야 가기를 祝합니다。

雄大한 그 建物― 萬年大計의 確立

開城 金秉河

朝鮮의 貴重한 言論界에 잇서서 貴報가 半萬日이라는 長久한 日字를 지내오며 朝鮮社會에 文字普及運動을 爲始하야 文化發展事業 其他 多角方面으로 犧牲的活動과 不斷의 奉仕的努力의 貢獻이 적지안흔터에 이번 內容基礎가 萬年大計로 確立되는 同時 따라서 雄大한 社屋을 漢陽의 中央盤石우에 現代的建物로 세워노시고 압흐로 勇敢하게 가시덤불속에서 벗어나아가며 雄業과 가튼 功績을 남겨노실것을 밋고 實노 慶祝함을 마지안습니다

過去도 壯커니와 今後더욱 壯키를

光州 金信錫

經營上多事多端한 險路를 밟아오든 朝鮮日報社가 새主人方應謨氏를 마지하야 革新한지 二年餘에 其勢洋洋하야 朝鮮最大의 新聞社屋을 짓고 今에 그 盛大한 落成式을 보게된것을 慶賀하야 마지안습니다 過去十五年의 歷史도 壯하거니와 將來에 對하야 永久한 民衆의 벗으로서 發展하기 바라며 더욱이나 嚴肅한 非常時의 報道機關으로서 萬全을 期하기 衷心으로 바라나이다

最大의 新聞社屋 新聞史上大慶事

須彼亞女校學監 金明信

革新二年에 第一을 자랑하든 朝鮮日報가 今番에 朝鮮最大의 新聞社屋을 짓고 盛大한 落成式을 擧行하게된것은 半島新聞史上에 一大慶事입니다 內的外的으로 [illegible] 確立한 此社는 過去보다 將來에 對하야 期待하는바 더욱 크거니와 무엇보다 民衆의 부르지즘(叫)이 되여주기를 바라는바이외다

그리고 報道의 正確과 迅速은 新聞의 本來의 使命이어니와 敎化機關이 不備한 朝鮮의 特殊한 事情에 鑑하야 高等한 文化의 先驅者가 되여주기를 바라는바이외다

人과 物이 完備― 倍前貢獻을 自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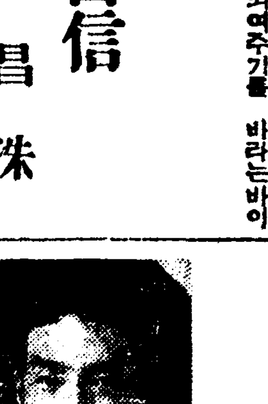
大田 林昌洙

우리言論界에 權威를 가진 朝鮮日報는 近來에 長足의 進展을 하고 잇다 吾人은 貴社에 對하야 恒時 深甚한 敬意를 가지고 잇는 同時에 貴社社屋이 狹隘하다는것을 恒時 늣기고 잇든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巨大의 資金을 投하야 設計의 縝密을 極하고 外觀內飾에 宏大堅實을 形成하야 京城中央地帶에 儼然이 聳出하는 新社屋이 竣工되야 吉辰을 卜하야 落成의 盛典을 擧行함에 當하야 吾人은 거듭 貴社에 對하야 慶賀의 誠心을 드립니다 大槪新聞의 使命을 다하고자할진대 言論의 主體인 人과 言論行使에 必要한 物的施設의 完備에 기다리지 아니치 못할것입니다 貴社는 人과 物이 完備以上의 完備이라고 斷言합니다 그럼으로 從前에 倍하야 貴社의 貢獻은 몃倍가 될것을 自信합니다 이點에 잇서서 吾人은 社會人의 一人으로서 貴社에 慶賀의 赤誠을 드리는바입니다 貴社는

貴社의 社屋이 他의 追從을 許하지 못함과 가티 言論界에 覇王이 될것을 表합니다 吾人은 言文이 不足함으로 以上數字의 蕪辭로서 祝辭를 代합니다

外觀豐富에 伴해 內容도 이에 相副

大田 柳東鉉



이제 朝鮮日報社 新築落成의 際에 臨하야 簡單한 蕪辭一幅으로써 祝賀의 微衷을 表하고저 한다

大抵朝鮮日報가 우리半島言論界에 呱呱한 우렁소리와 함께 儼然한 姿態를 낫타내인것이 무릇 十有五星霜의 長久한 歲月을 閱하게 되엿다 創刊以來 幾多의 難關이 잇섯든것은 새삼스러운 事實이나 이것을 避하는 同時에 滿天下讀者의 記憶에 맛기라 하거니와 이에 그 難關을 突破한 오늘에 잇서서 社屋을 新築함에 伴하야 外觀의 豐富함을 버릇하겟스며 記事의 敏速함에 伴하야 內容의 充實을 中外에 發揮할만케 되엿다 이것은 오로지 人과 物이 俱備한 朝鮮日報가 아니면 차저볼수업다 하겟다

言論機關이 社會의 警鐘이며 民衆의 木鐸인것은 새삼스러이 贅言을 要치 안는다 特히 朝鮮日報는 外部的 社屋의 宏傑함보다도 內部的 文士의 彬彬함으로써 그 超群的 活躍精神과 敏速的 公正健筆을 들어 우리社會의 公器가 되리라 밋고 스스로 欣賀하는 同時에 大廈成而燕雀도 오히려 서로하례하거든 하물며 사람으로서이랴! 에 오라지 數句의 拙辭으로써 貴報의 將來를 祝福하야 마지안는 바이다

義惠線開通따라 國際橋架設計畫

慈、厚、昌江口에서 對岸連絡 十二年度부터 着工

【平壤】 금년십월부터 신의주혜산진간(新義州惠山鎭間)의 백오십키로의 국경동맥선인 의혜도로(義惠道路)가 완성개통될터인데 평양토목출장소에서는 다시대안만주국과의 교통을더욱편케하기 위하여 창성(昌城) 자성강구(慈城江口) 후창강구(厚昌江口) 삼지점에서 만주국에 건너는 국제교량(國際橋梁)을 가설할계획으로 소화십이년도부터 긔공할터이라 한다

馬山中央補習科 十三日開校決定

馬山教育界喜消息

【馬山】 매년졸업기만되면보통학교(普通學校)졸업생 삼백여명을 비롯하야 각초등수업학교 아동수가사오백명에 달하는 마산에 중등교육 긔관이라고는 을종상업학교(乙種商業學校)하나뿐이므로 일반은 유감으로 생각하여오든바 마산의사업가요 교유계의 공로자인 옥인환(玉麟煥)씨를필두로 사오유지의활동으로 마산중앙보습과(馬山中央補習科)를설립코저맹활동을하며 방도당국에 인가신청중이든바 지난팔일도에서 인가되엿스므로 오는십삼일부터 개교하기를결정 하엿다는데 그동안 모집된아동수도 오륙십명에달한다고한다

淸州支局後援 教育舞踊講習

【淸州】 본보청주지국에서는아동교육문제에잇서 정서도야(情緖陶冶)와 건강아동양성(健康兒童養成)의의미하에 동경호전아동무용연구소(東京戶田兒童舞踊研究所)강사 함귀봉(咸貴奉)씨의 만철초대로 도만도중인 긔회를리용하야 청주서 교유무용강습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동씨는음악과무용을 전공하야 소양이풍부하니만치 일반의긔대는 크다 한다

中國人假醫師 咸興署에 被逮

【咸興】 본적을중국산동성(山東省)에 두고 정전청(鄭殿淸)(三五)이라는 중국인은 수개월전부터 함흥부내와 함주군내를 배회하면서 수십년전 중국에서 의학을 연구하고 서호진(西湖津) 원산(元山)에 분원을 설치하고 진료중이데 불치의병자라도 순식간에 압쾌시길수잇다고하면서 함흥부치마정(馳馬町) 고승규(高承奎)의장남 봉덕(鳳德)(七)외 팔칠명에게 투약진료하엿는데 전치된이후에 삼십원내지오십원의 진찰료를 밧기로하고 위선선금으로 일원내지오원을편취하여먹은사실이 발각되여 팔일함흥서에 피검되엿는데 취조한결과 약이라는것은 전부 『아스피린』 『아이푸』 『고장환(固腸丸)』등 매약을 공묘히포장한것으로 취조에따라 여죄도상당할모양이라고한다

메-데檄文事件 金正煥逐送局

【咸興】 금년오월일일 『메-데-』격문다수를등사하여 함흥부내와 함주군내각처에 산포한 혐의로 공산청년재건(共靑)을 획책하다가 피검된 김정환(金正煥)(二五)은 그간 함흥서에서 엄중취조를 밧다가 지난팔일 일건서류와 함께 함흥법원검사국으로 송치되엿는데 김정환(金正煥)은 간도공산당(間共)사건에 련좌되여 징역오년의형을받고 금년봄에 출옥한 사상계의 거물이라고 한다

百餘萬圓工費로 第四次 救窮工事實施

十一年度부터 五年繼續으로 咸南道當局豫算申請

【咸興】 함남도에서는 홍원남대천 청남대천등 제삼긔구궁(救窮)토목공사는 금년으로서 종료하고 다시 명년도부터 오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제사차 궁민구제토목공사(第四次窮民救濟)를하기로되여 목하예산을 신청중인바 총공비는 일백십팔만원 이라고한다

八歲少女溺死

【谷山】 곡산군 운중면 흡계리 유홍선(谷山

密航뽀로커打盡

【釜山】 까다롭게되여 도항하려는 무지한농촌인을상대로 밀항뽀로커의

이 출항한다는것을 수상경찰서에서 탐지하고 서원수명이 현장에 달려가서 밀항자삼십여명을 발

풍선에 승선시켜 출항하려는것을 배에올라가서 대격투를한후 부내초량정륙백사번지에사는 김수학(金壽學)(三五)외수명의 밀항뽀로커를체포하야 동서에유치하고 취조중이라한다

宿望의 文幕河川 復舊工事運動

【文幕】 강원도원주군의 인후(咽喉)이요 모든물산의 집산지인 문막은 전일에는 일소농촌에불과하엿스나 시대변천에따라 지금에는 세상이다알만큼 발전이되고잇는바 지세로는 남한강지류인 섬강(蟾江)이 본면중앙을관류하는데 좌우에는 옥토량전과 약사백여호가 하천불완전으로인하야 수리조합구내 백여정보의전답과 인가등의류실의 우려가 잇서서 항상불안을 늣겨오든바 이를 총독부에탄원하야 칠만여원을들려 호안공사를하여 한동안 안심되엿섯는데 소화오년도의 홍수로 제방이무너저서 전답의 류실과 인가의침수가 년년확대되여 일반주민들은 피해가막대하며 불안을늣기든중 지난봄 이십일경에 총독부본간(本間)토목기사가 동지방에 시찰왓든때를리용하야 면유지일동의 숙망해여오든 복안을 진정하엿다는데 복구공사되기를 일반주민은 갈망하고잇다한다

慶北에 陳情沙汰

一日부터 八日까지 土木關係만 廿四件

【大邱】 경북도내각지에서는 경기지사(岡崎知事)가 [illegible]상주(尙州)기타지방을 처음으로순시한후부터 토목관계사업 촉진등을 진정하엿다는데 지난 일일이래 팔일현재까지 도당국에 도달한 진정건수가 발서 이십사건을 돌파하엿다 한다

大同江上血淚劇

'조개'잡이 갓든 母女 一時에 水中孤魂

【平壤】 수은주의 팽창으로인하여 대동강과보통강안에는 물놀이가는사람의 수효가격증하고잇서서 익사(溺死)사건이매일계속하여이러난다 팔일 보통강에서는 조개잡이를하든 부내암정(岩町)五번지리씨(李氏)(三一)와 그딸 김하섭(金夏涉)(十)의 모녀가 일시에익사하엿는데 딸김하섭이가 조개를잡든중 깁흔곳에 떠러저 빠젓스므로 그모친이 구하려다가 가치 참혹히도동시에수중혼이 되고만것으로 딸은아침에발견되엿스나 모친의시체는 아직발견되지안허 가족과 동리사람들이 수사중이다

城南庭球大會

【全義】 전의정구부(全義庭球部)주최 동아、조선량지국후원하에 칠월십사일에 제삼회성남정구대회(城南庭球大會)를개최키로한바 참가금은 일조에오십전이고 상품

蚊帳에 引火되여 慘! 三男妹死傷

八日密陽驛前慘事

【密陽】 지난칠일오후 십이시경 밀양역전(密陽驛前) 문성덕(文成德)의 집에서 불이일어나 삽시간에 집한채를태워버리는바람에 문성덕의 장녀희야(熙世)(一六)와 장남조이(祚伊)(八)차녀정숙(貞淑)(六)의 세아이는 화상을 입어 그중조이와 정숙이는 그의익일 팔일정오경에 모다사망하엿스며 희야도위독하다는데 전긔문성덕은 생활난으로 작년여름에 만주에가고 그의처도 얼마전에 부산친가에가고업는틈에 전긔어린삼남매만 등잔불을켜노코 모기장을치고 자든바 등잔불이 그만모기장에옴머부터 화염이 이러나매 어린것들은 피할길을잇고 그와가티 무참히 타죽어버렷다고한다

妙齡少婦의 疑問의 溺死

【平壤】 팔일오후여섯시 삼십분경 부내염점리(鹽店里)사진업 림문식(林文植)의처 최현숙(崔賢淑)(二七)은 부벽루(浮碧樓)상류이삼정되는 강상에서 『뽀-트』를 타고잇다가 빠저죽엇는데 자살인지 오사인지 판명되지안허 평양서에서 조사중이며 시체는 아직발견되지안헛다

咸州郡一帶에는 赤痢病이 大猖獗

數旬間에 發患者百名을 突破 富興里엔 死亡者多數

【咸興】 함주군삼평면(三平面)일대는 륙월하순경부터 전면적으로 적리(赤痢)가대창궐하여 리병자수는 백여명이상에달하는데 특히동면부흥리(富興里)가 특등리는 전동칠십여호전부가 적리(赤痢)에 감염되여 벌서 사망자도 오륙명이나 발생되엿는데 동면주민은 당국의 방역소독을 갈망중이라 한다

力技大會開催 本報支局後援

【奉天】 당지조선인체육회에서는 본사봉천지국후원으로 조선력기(力技)력예(力藝)계에 제일인자인 림춘학(林春鶴)씨일행의 래봉을 기회로 일반시민위안공개를 예정으로 위선그실력을시험키위하야 당지서탑대가순흥청미소파장에서 『팔에철봉(鐵棒)감기』 『배위로자동차지나가기』등을 시험한바 만점으로 통과하엿스므로 동회에서는 적당한장소를 교섭하여 근일래로 일반에게공개키로되엿다 한다

淸風庭球大會 大盛況이룬

【淸風】 본보청풍분국주최 북부충북(北部忠北)정구대회를 지난칠월칠일 제천군청풍(堤川郡淸風)공보교정에서 개최하엿든바 각처선수 다수참가로 대성황을 이루엇다 우승은 대소원(大召院)진창선(陳昌善) 김종헌(金鍾憲)이라한다

關西庭球大會 盛況裡에 閉幕

【安州】 지난칠일본보안주지국후원인 관서단체정구대회(關西團體庭球大會)는 오전십시부터 보광(普光)학교정구장에서 회장김병규(金秉奎)씨사회하에 열리어 대성황리에 오후사시폐막되엿는데 참가팀은 평양(平壤)령미(嶺美)개천(价川)군이엿는데 우승은 평양군이라고한다

轉錦門改築費로 三千圓을 喜捨

愛子의 遺志에 따라 金成寶女史로부터

【平壤】 모란봉공원입구에잇서 평양활문의 한아이든 전금문(轉錦門)이 삼년전에 문허진채로 일반이애석히 생각하엿든바 평양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지방비보조이천원 부비이천원 합계사천원으로 하기로 되엿섯다 그런데 부내염점리(鹽店里)에거주하는 김성보(金成寶)(六一)녀사는 팔일평양부에 려식고주태혁(故朱泰赫)군이 생전에 일상전금문의도괴를 탄식하면서 복구를 기다리다가 희망을실현치못하고 가버렷스므로 김녀사는 이것이 마음가운데 못이박히게되여 생활비를 절약하여 누문복구에 사용하라고 현금삼천원을 긔부하엿다

鴨江時話

活海生

◇新義州는 靜觀主義?

平北 多年의 懸案이든 女子高普의 設置가 今年에는 엇저면 實現될 氣脈이 보히게되얏는데 그러면 그位置를 어듸로 하자느냐?가 또는 問題

◇ 定州邑에서 『女子高普의 位置를 꼭 定州로하라! 그러면 돈五萬圓을 내이겟다』 하고 첫소리를 질럿드니 이 消息을 들은 宣川邑에서는 『그것이 될말이나? 우리도 五萬圓을 내일터이니 女子高普의 位置는 반드시 平北文化의 中心地 宣川으로 하라!』 하고 맛소리를 질럿다

◇ 定州에서는 또다시 『그것이 될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十萬圓을 내이겟다』 하고 드리덤비는데 맛치 競賣場에서 競爭呼價하는 光景과 恰似。

◇ 그中에 平北의 首都 新義州에서는 始終沈默。 靜觀主義만을 取하고 잇스니 엇지 되일인가! 沈默하고 잇서도 『女子高普는 依例히 新義州로 오리라』 하는셈인지? 그러치 안흐면 『新義州에는 女子高普를 둘 必要가 업다』 할인지? 또 現在의 靜觀(?)은 엇더한 躍動을 前題로한 暴風前의 靜寂과 가튼 것이지! 新義州府民에게 물어보고 십흔 일이다

地方人事

▲朴珊燮氏(康津郡守) 新任人事次本社康津支局來訪

▲金載憶氏(前康津郡守) 今番退官人事次本社康津支局來訪

▲朴禹俊氏(郡山學校評議員)當選人事次去五日本報郡山支局來訪

地方巡回

桂貞植博士提琴獨奏

伴奏 피아노 獨逸人 콜러孃

◇湖南線 △裡里 十一日 裡里座

◇咸鏡線 △元山 十三日 樓氏女高普講堂 △咸興 十五日 東明劇場

(會員券壹圓)

主催 朝鮮日報社

社告

今般本社에서 左記와 如히 支局을 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慶山支局 位置 京釜線慶山驛前 支局長 李尙淳

今般本社에서 左記와 如히 支局을 變更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南川支局 位置 京義線南川驛前 成郁周 右任支局長 / 支局長 李愚良 右解任

今般本社에서 左記와 如히 支局名稱을 變更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谷城支局 (前玉果支局) 位置 谷城郡邑內 支局長 鄭東華

今般本社에서 左記와 如히 分局을 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河陽分局 位置 慶山郡河陽 分局長 全明石

今般本社에서 左記와 如히 販賣所를 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福岡販賣所 位置 福岡市出來町 主任 金注權

謹告

淮陽支局 泥浦里分局長 金司鎬 右新任

原州支局 文幕分局總務兼記者 李英在 / 同 顧問 柳年茂 / 同 寫眞班記者 韓健愚 右新任

奉天支局 興京分局記者 吳成秀 / 同 李應華 右新任

福岡販賣所 通信員 金景淳 / 同 金鍾瀚 右新任

琿春支局 顧問 金錫麒 / 同 李亨來 / 同 姜周興 右新任

永興支局 總務兼記者 李致淑 / 記者 李福善 / 寫眞班記者 黃信俊 / 集金員 李致三 右新任

雄基支局 記者 金奎東 / 阿吾地分局長 吳順慶 右新任

榮州支局 集金員 李甲祚 右新任

安州支局 記者 金應植 右新任

蔚山支局 彥陽分局長 尹東鳴 右解任 / 彥陽分局長 張驥富 右新任

河東支局 辰橋駐在記者 鄭潤柱 右新任

汶山支局 記者 李圭洪 右新任

永同支局 靑山分局長 南化鳳 右新任

大田支局 儒城分局長 金永信 / 同 記者 金洛圭 右解任 / 儒城分局長 金洛圭 右新任

扶餘分局 記者 李寬裕 右新任

安岳支局 大遠分局長 張基弘 右新任

水橋支局 松禾溫泉駐在記者 吳德實 右新任

翠野支局 記者 吳朝東 右新任

熙川支局 新豊分局記者 張鳳七 / 局長 金正一 / 顧問 韓鳳傑 / 同 右新任 / 新豊分局長 韓鳳一 / 總務兼記者 金正傑 右解任

寶城支局 記者 任洙憲 右新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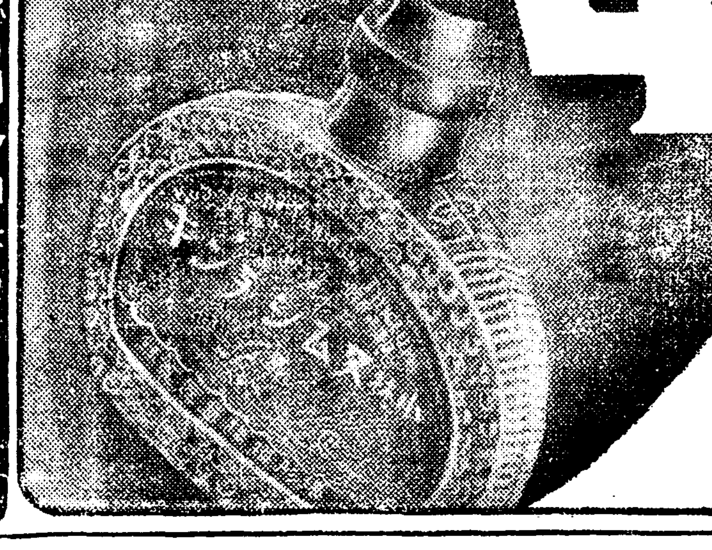
イボ・魚の目・タコなら 手術不要 楽々とれる

イボコロリ

薬價 30 50 100

大阪市西区京町堀 小林大薬房

塗つてこッりコ薬のキメ



水虫 たむし いんきん

小林 浸透性 深達療法

タムシチンキ

(다 무 시 징 기)

爽快! 爽快!

참으로 잘듯는다!

고하는말은 한번발너 보신분은 다말하는 讚辭입니다

그럴일이다!

다른藥劑에 比하야 浸透性 深達力과 殺菌力이 强하게 皮下의 潛伏菌까지도 殺菌식힌다。

其發育을 抑制하고 부어서 헙어진데를 消炎保護하야서 새로운 健皮를 再生식혀 氣分조케 治療하는것은 本劑의 特長이다。

살작한 번발너보시면 아조爽快하게 된다。

小林大藥房 大阪京町堀 名古屋廣小路 東京 デパートにあり

定價 20 30 50 1.00

在來棉에서 陸地棉
棉作大革新計畫
黃海、平北、京畿도陸棉作可能
明年부터積極獎勵

京畿、黃海、平南、平北四道와忠北、慶北의一部에잇서서 陸地棉의栽培가 全然不可能한것으로斷定하야農林局에서도 繰綿率이적은在來棉만을 該地方에奬勵하여오든터인데 最年黃海、平北京畿에도陸地棉의栽培가 可能한것을알게되야 今後前記諸道에도 繰綿率이만코 品質이優良한陸地棉을栽培奬勵하려고 現在該地方農家에서 自發的으로栽培하는 陸地棉의作況을 重視하고잇다는데明年度부터는該地에 陸地棉의本格的栽培를奬行할計劃이라한다

農林具實演展覽會

朝鮮米肥日報社와 ㊉ 穀物協會에서는 總督府農林局、殖産局、朝鮮農會의 後援을어더 第一回朝鮮農具實演展覽會를 來九月二十日부터二十四日까지五日間鎭南浦府明峽町廣場에서開催한다고한다

粟移入激增
六月中近六萬피클
五十二萬五千餘圓

六月中 日本內地로부터 移入된粟의 數量은 五萬九千九百八十一피클 그價額이 五十二萬 五千五百 二十七萬圓에達하는바 前年同期 一萬二十六피클、價額五千六百九十二圓에 比하야 實로四萬九千九百五十五피클五十二萬九千八百三十五圓의 激增을示하얏나 이제그增加의 原因을들면첫재 日本內地粟移入에는 關稅가업고 其他輸入粟에는 關稅가高率인것 둘재昨年滿洲方面의粟이 凶作임으로 本與市勢가昻騰한것、셋재米의 高價가 主要한原因이라한다

水産製品檢査所
三個所新設豫定

水産製品檢査所는 全朝鮮二十二個所인데 總督府水産課에서는明年度豫算에 三萬圓을 計上하야三個所에 新設할方針이라한다新設地는未定이나 大體로咸南北에新設되리라고한다

江原道鰮豊漁
三割增獲을豫想
價格도前年보다高價

江原道는東海岸에잇서 優秀한漁場도마히가지고 잇스나從來漁業에對한設備不足과 交通通信의不便으로因하야 그發展이遲遲하다 그러나近年은 차츰施設이擴充되며 其他交通 通信의便도조와지는 途程에잇슴으로 年年漁産額이增加되는 一途이다 그리고主로生産되는魚類는 鰮 靑魚鰈 明太等인바 其中에도鰮의漁獲은年四百餘萬圓에 達하야漁民生活의 重要한部分으로 되어잇는데今年은 潮流의好調와 漁船의增加로말미아마 三割增加를豫想이라하며 價格도一梱 (六斗入) 에對하야 一圓六十九錢乃至一圓八十錢으로前年에比하면一梱에十錢乃至十五錢의騰貴이라한다

滿洲洋灰界
前途多端
各社의進出로

【新京電話商通】本接潮에大倉系의新會社가 設立되는境遇滿洲의洋灰生産能力은如左하다(單位噸)

◆小野田系

關水子工場	一五〇
鞍山同	一七〇
泉頭同	一〇〇
計	四二〇

◆非小野田系

大同洋灰(淺野)	一一〇
撫順同(滿鐵)	八〇
哈爾濱同	七〇
滿洲同(三菱)	七〇
本溪湖同(大倉)	一〇〇
計	四三〇

으로兩派의勢力은匹敵하고總生産能力은八十五萬噸에 達하게되든바 勿論出荷準備가 아직完成치못한곳도잇슴으로 今年度生産은 그六割인 五十萬噸前後로 需要豫想六十萬噸에 達치못하는바 九年度의 輸入數量四十四萬二千噸을 보면을넘만한 飛躍이다따라 此等各工場이모다 生産을 開始하게되면 早晩過剩할것이며 滿洲의土建景氣가 現在보다 上向치안는限 不遠한將來에 生産制限을行치안으면안되리라고보인다

朝鮮製鋼의
北鐵物資問題
日本內地側主張은認識不足

北鐵代償物資로서 釜山의 朝鮮製鋼과 契約이成立되어 이지음積出을終了한 마닐라를비롯 一千百五十本四十萬圓에對하야 日本內地側業者는 朝鮮製鋼의 生産能力에疑念을가지고 日本內地製品의轉賣가아닌가하는것이 問題되어 商工省에서도 이에귀를기우리는狀態임으로 이認識不足을打破키爲하야 朝鮮貿易協會에서는그러한일은업다고 否定하고 朝鮮製鋼의 生産能力을保障하얏다

撫順炭共同購入決定

【東京電話聯合】電力聯盟에서는九日午前十一時부터 丸內銀行俱樂部에서總會를열고 來年度撫順炭購入의件及 朝鮮電氣成立의件을附議하얏는바 撫順炭共同購入은今年度와가티 大體三十萬噸으로할것 이配當은大同電力、宇治川電力、日本電力各六萬噸、東邦電力、關西共同火力、各四萬噸、東方電力三萬噸으로하고 宇治川電力은昨年度分을加算하얏다 그리고價格은錢分引上할模樣이다

耐寒作物試作코저
農試擴張을計畫
農林局에서豫算編成

昨年北朝鮮一帶의 冷凍害가激甚하여 大減收된데對하야 農林局에서도耐寒性作物의獎勵를 企畫하고잇는바 今般그實現策의第一步로總督府農事試驗場 北朝鮮支場의擴張을計劃中인바 試驗品城도同時에擴張하야 品種改良特히生育期間의短縮試驗、耐寒性作物의選擇을하며 其他食糧作物以外의特用作物即亞麻、『호프』等作物에잇서서도 前記의試驗을하고저同擴張에對한豫算을 編成中이라는데 明年度부터그實施를보리라고한다

慶南水稻移秧狀況

【釜山】慶南道의水稻移秧은大槪完了되엇는바 六月三十日까지의移秧狀況은左와如하다 그리고移秧豫定面積十七萬九千三百十餘町步에對하야 移秧한面積이十六萬二千八百二十餘町步로 九割八厘가량되엇는데 昨年同期의六割六分四厘에比하면 二割四分四厘의增加이며 各地狀況은 釜山九割馬山九割三分 晋州九割五分一厘、宜寧九割六分 咸安八割五分六厘昌寧七割五分五厘 密陽八割 梁山十割 蔚山九割六分 東萊十割金海九割五分 昌原九割五分 統營九割三分 固城九割 泗川九割六分一厘 南海九割五分 河東九割四分五厘 山淸九割三分五厘咸陽七割三分 居昌七割七分 陜川九割一分 平均九割一分等

今年春繭共販
二百十萬貫豫想
廿日까지는終了될貌樣

今年春繭共販은 벌서 忠南、忠北、慶北、慶南、京畿六道가終了되고 남어지七道도 二十日頃까지終了될 貌樣인데 大體今年은出廻도前年보다 增加되야 共販數量二百十萬貫을 豫想하고잇다는바前年百三十八萬貫에 比하야五割餘의 增加를 보리라한다

關東州內의
石油界混亂
滿洲石油의進出로

【商通大連電話】今年四月 滿洲國石油專賣法實施와同時에 販賣範圍를 關東州內에限定된 石油業者는 目下鋭意其對策을研究中인바 反面에잇서서 業者相互의販賣競爭이猛烈을極하야 市場獲得工業界에의新販路開拓運動이 盛히繼續되고잇다 또關東州內의全般的滿洲國의實行으로 自動車의增加와同時에 昨年同期에比하야約二割의增加量을示하고잇는바 市勢는 業者間의競爭에依하야 專賣法實施以前에比하면 約一割五分低下하야昨今은五가론二圓가량을唱하고잇다 그리고 最近外油三社와 新潟 九州產의 國產까소린에加하야 滿洲石油가 地利를利用하야 州內市場에도 進出하야新戰하기始作한結果 業界는저옥히混亂狀態로되어잇다

元山港牛移出
九萬四千餘頭

【咸興】元山港에서今年一月以來六月末까지移出된 畜牛는一千七百七十二頭로 그價格은九萬四千圓에達한다고한다

釜山稅關管內의
水産額大增加

【釜山】昭和九年度에 釜山稅關管內水産總檢査合格數量은 三十五萬九千六百四十八個 二百二十三萬四千八百四十九斤 三百三十三萬八千九百六十三束 價格六百十六萬一千五十四圓인데 前年度에比較하면 二十三萬五千三百九十六圓의 躍進的增加를 보이다그리고 食用乳物製品은 海參鱧鮑乾鰒蝦 乳鮑 牡蠣 淡菜 海苔貝柱等의各種이며 前年度보다一般的으로 高低持續으로 그와가티 增加를보이는것이라 斤數도四十七萬式 千六百五十二斤이나 增加하얏다

元山漁組水揚高
六月中近七萬圓

【元山】六月中元山漁業組合總水揚高는 六萬八千五百四十圓九十二錢이라는데 이것을 昨年同期에 比하면 四千百十八圓七十七錢의 增加를 示하엿다고하는바좀異狀을 示한것은 昨年 同期에 比하여 今年六月에는 例年에업는일로서 千八百圓餘의 明太魚를 水揚하엿스며 또한 昨年六月에는 四百餘圓어치나 鯖魚를 漁獲하엿는데 今年六月에는 全然업섯다고한다

質疑

一事實問題만말고 一回一問으로 簡單明確하게

問 小生이 白色兎 伊太利種 三百餘匹을 現在飼育하고잇는데 販路가엇더할가요 또生兎의 購入所와 朝鮮副業協會의 住所를 下敎하여주시옵소서 (黃海道平山郡 張鎬永)

答 販路는 念慮업습니다 販路는 十一月乃至 三月頃의探皮期가조흐나 現在販賣하시라면生兎百匁에二十錢가량입니다 朝鮮副業協會는 京城府蓬萊町一丁目 一二三番地인데 同協會에서도 販賣斡旋을합니다

上半期移出入
「貿易槪算額」(單位圓)

▲移出入品價額

區別	今年一月以降累計	前年一月以降累計	增減(△)
移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移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移入超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移出重要品價額

品名	今年一月以降	前年一月以降	增減累計(△)
米及正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數量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人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콘스타-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乾鹽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乾海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牛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魚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繰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黑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鐵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洋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海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諸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移入重要品價額

品名	今年	前年	增減(△)
米及正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數量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麥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淸酒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麥酒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揮發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燈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爆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全燐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繰綿及打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織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金巾及生細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晒金巾及晒細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木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진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太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繻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擬麻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絹織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諸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移出入品價額港別

港別	一月以降移出	移入	累計合計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雄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龍岩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一七三三	黃海海州郡東雲面	六月二十一日	高陽郡龍江面代表者李輿浩 京城府武橋町 金福敎 高陽郡龍江面 趙鵬燮 海州郡東雲面 徐鍋權
七一一六	忠南洪城郡長谷面	同廿四日	東京市淀橋區 蒲田精一

◇共同鑛業代理者指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八三五九	京畿安城郡寶城面	六月五日	代表者를閔泳壽으로指定함

◇共同鑛業權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八三八九	平北龜城郡天摩面	六月廿四日	代表者를李興文으로改定함

全州

全州邑 實業家 印昌燮

全州大正町一丁目 完興泰紙物商

中外書院 主 陳相庸 電話三三四番

全州 七曜會

全羅北道 知事 高元勳

全州郡廳 郡守 諸田萬壽男

全州製傘組合 理事 鄭台亮 全州邑高砂町

全州穀物商組合

全州郡鳳東面 財團法人 鳳翔産業組合

全羅北道産業課長 金惠基

全州郡 鳳東面職員一同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全羅北道支部

全州邑 金三熊

全州邑職員一同

全州專賣局職員一同

全州大和町一五一 齒科 口腔外科 林醫院 齒科醫學士 林澤龍

全州淸水町 白南赫

全南白羊寺全州布敎所 布敎師 郭金城

全州初等學校職員會

全州八達町 保隣醫院 醫學士 白昇澤

全州邑內 張炳善

全州郡鳳東面 李元求

全州邑豊南町 全州麵子合資會社

全州大正町三丁目 和洋百貨 長安商會

全州南門內 興韺商會 李錫柱

全州郡鳳東面 黃熙喆

全州邑本町一丁目 和洋菓子 雪糖 蔘粉 食料品 都散賣問屋 玉山堂 主 金点得

全州 全州新興學校 無名氏

碧潼

碧潼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校長 田邊熊二

碧潼郵便局長 堀榮吉

碧潼郡廳

平北碧潼 金官興 電話二三番

平北碧潼郡鶴會面 面長 劉秉權

碧潼加別百世鑛山 李汶柱

碧潼郡吾北面事務所職員一同

碧潼郵便局 坂田守

碧潼邑內 林業 金炳淳

碧潼郡邑內 日高由俊

碧潼郡雩場市 金龍紀

碧潼郡雩場市 金盛釀造商會 金燮洪

碧潼郡雩時面二洞 碧潼和信連鎖店 金涉 電話一九番

平北碧潼雩市 穀物貿易、絹紬布木、和洋雜貨、農具一式 雩時農民共生組合 電略(ゼ)又八(セイ)

碧潼郡邑內二洞三同商會 金龍丁 電話二八番

碧潼雩時 三本松尙

碧潼邑內 金秉洌

碧潼郡雩場市 加別共盛組合支店

碧潼吾北面三洞金鑛 閔大植

碧潼郡雩時 國境商事株式會社 雩時出張所

碧潼郡雩場市 崔錫衡

碧潼郡城南面 公議柱

碧潼邑 金成道 電話一二番

碧潼面二洞 金明河

碧潼雩場市 信成商務組合 和信連鎖店

平北碧潼邑內 碧潼農民共生組合

碧潼郡雩場市 綿絲布、雜貨、穀物、食鹽、釀造業 吾北殖産組合 商務部

平北碧潼邑內 高級洋服 調進 金城洋服店 主 金燮洛

碧潼雩場市 公醫 白承煜

碧潼邑內 池洪祚

平北碧潼雩時市 木材 貿易 雜貨 東泰商會

平北碧潼邑內 書籍 雜貨 文具 玩具類 鴨江商店

碧潼邑內 碧潼醫院

碧潼雩場市 郵便所長 有馬純男

邑內 崔錫元

碧潼郡邑內 張如綸

碧潼郡雩時面 韋瑞琭